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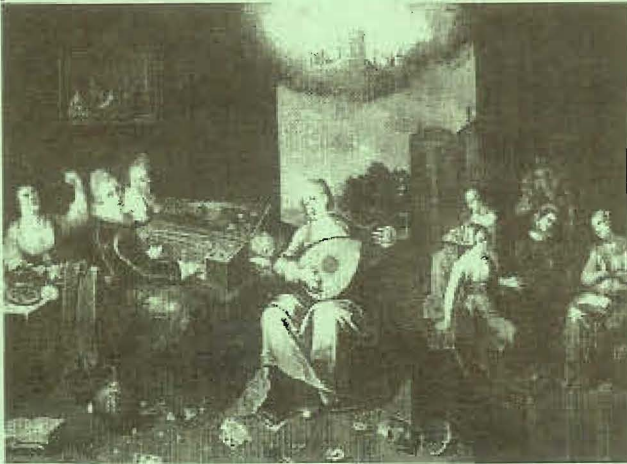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 성월, 연중 제32주일
제31권 50호(가해) 2011-11-6

[묵상]



열 처녀의 비유<17c, 히에로니무스2세,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열 처녀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은
합당한 준비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처녀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으름과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심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참담한 결과.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야속한 이들
문을 열어 줄 수 없다는 주인의 답변
준비는 나누어 줄 수 없고 혼자 해야 하는 것
한번 내려진 판단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
'남이 대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야 함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함을
이미 늦은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 처녀의 가장 어리석음은
그 때임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난 것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했거늘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어찌 어리석은 자들이었겠습니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재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김형순 다니엘 & 김호인 벨라멧다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오진 베드로, 주정애 & 김재철, 박부원, 최우진 앨런, 고준희 제임스, 신태동 요아킴, 엄은섭 도로테오, 송인식 & 장석진 & 황임순 안젤라, 김중환 야고보, 이송림 요셉 & 이석은 마리아, 오태동 요한, 민소예 모니카, 조정림 요셉, 지용애 & 이봉수, 정요임 안나, 최병기 요셉, 정숙희 헬레나, 장종애 요안나, 유광수 야고보 사제
	(생)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성은혜 실비아, 우영희 엘리사벳, 방미숙 마리아, 이기숙 엘리사벳, 전화숙 마리아 & 김숙희 모니카, 이용식 베드로 & 이복임 엘리사벳, 이광웅 요셉,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김효준 아오스당, 사도들의 모후pr, 김씨니 클라라, 이장환 다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체

제 1독서 지혜서(Wisdom) 6,12-16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주 - 님, 저의하느님, 제영혼 당신을 목말라 - 하나이 - 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1서(1 Thessalonians) 4,13-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다.○

복 음 마태오(Matthew) 25,1-13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18	346	184
봉헌	270	255	254
성체	280	283	307
파견	222	200	22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러므로 사도적 전승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20) 성경은 그
전승의 흐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듣고, 읽고,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느님 말
씀”이라는 표현은 유비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는 이를 인식하
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하고 동
시에 그 단일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과 그 안
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가 더 분명하게
빛나도록 이 표현의 서로 다른 의미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
는지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우주적 차원

8). 하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느님
의 말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귀
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성경의 계시로 인도되어 이 말씀이 모
든 실재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성인의 서문에
서는“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
은 하나도 없는”(요한 1,3) 하느님의 로고스에 대해 말하며, 폴
로새서에서도 “모든 피조물의 말이”(콜로1,15)이신 그리스도
에 대하여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
다.”(콜로 1,16)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
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
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히브 11,3)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는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합리한 우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하신 것이라고, 하느님의 계획 안
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그리
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피조물
은 로고스로부터 생겨나며 질서를 부여하고 인도하시는 창조
적 이성의 지을 수 없는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들은 이
기쁨에 찬 확신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
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32],6).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
났기 때문이네”(시편 33[32],9). 모든 실재는 이 신비를 드러
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
의 솜씨를 알리네”(시편 19[18],2). <◆계속>

준비하는 사람

세계적인 명지휘자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1867~1957)가 걸은 지휘자의 길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앞에 놓인 악보조차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현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할 때마다 토스카니니는 항상 악보를 미리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갑자기 지휘자가 공석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악단에서는 지휘자를 대신할 사람을 바쁘게 찾았습니다. 악단을 지휘하기 위해선 연주할 곡을 전부 악보 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 하여 외우고 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9세,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신앙인의 준비 자세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량을 맞을 준비로써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언제올지 모르는 신량을 위해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충분

한 기름으로써 등불을 밝히며 밤늦게 찾아온 신량을 마중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량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준비와 실천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직과 성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등잔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만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등잔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착한 행실과 열심하한 기도생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량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생활로 우리의 기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엄영숙 마리아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권오상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권순길 체칠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신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 성월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2일(토) 오후 2시(1시30분까지 도착 요망)
- 장소 : Holy Cross Cemetery(컬버시티)
- * 카폴문의 : 꾸리아 부단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 ☎(310)569-0482, 당일 낮12시30분까지 성당집합

◆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통비치)
- 2부행사 : 각 성당대항 "우리 신부님도 가수다."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가브리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제2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11월6일(주일) 오후 1시30분, 농구장
- 대상 : 양업회, 성모회, 대건회, 자모회, 원서회(남,여), 배론청년회(남, 여), 주일학교교사회(남, 여)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참가비 : \$50(단체)
- 상금 : 우승팀 \$150및 트로피, 준우승팀 \$50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예비자 교리 시작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3일 첫교리가 시작됐으나 예비자를 계속 모집합니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마르띠노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1월11일(금)은 투르의 성 마르띠노 주교기념일로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며칠 앞당긴 오늘주일(6일) 낮미사 후 친교장에서 있으며, 신부님께서 전신자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한턱 쏘~시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이어서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팁 \$10 별도)
- 인원 : 선착순 40~50명
- 신청 : 11월13일(주일)까지, 신청금 \$100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2011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13일까지 제출(사무실에 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으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토요일전(청년미사) 청년밴드부 모집

- 자격 : 신앙 깊은 청년 반주자(악기, 보컬)
- 문의:곽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청년회 성경퀴즈대회 응원 :

오늘 5일(토) 오후 5시30분부터 이웃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남가주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본당 배론청년회에서도 선수들이 참가하여 한껏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기도중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6일(주일) : 성모회(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점심나누기)
- 11월13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금동균	김광자	김연경	김 용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김광자	김 용	김정희	김종문
	김정희	김종문	김주량	김찬구	김호순	박정희		김주량	김찬구	김호순	박정희	서성용	신중철
	서성용	송영미	이병우	이석진	이영희	이재용		이병우	이영희	이현주	임한나	조준제	최태훈
	이현주	임연조	임한나	장영진	조준제	최수현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최태훈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합계 : \$2,800							합계 : \$1,690						
미사헌금 : \$2,730							한남체인 도네이션 : \$550						

공지사항

◆ 매달 첫째주일 학생영어미사 1.5세 한인신부님 집전

- 시작 : 오늘 주일(6일) 오전 9시30분 미사
- 사제 : Fr. 리처드 선우(소속본당 St. Lawrence)
- 셋째주일은 종전대로 St.마가렛매리 본당 신부님 오심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11월12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
- 주제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20(티셔츠, 점심 포함)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학생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오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경본을 사용합니다. 한영 매일미사 11월호는 이미 바뀐 영어미사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제7차 만남의 장

- 일시 : 11월1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chungsilhongsil@gmail.com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기념미사

- 일시 : 11월19일(토) 오전 11시
- 성당장소 : 2035 Otterbein Av.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번에 새로 축성되는 성 가브리엘 성당은 기존의 성 크리스토퍼성당과 성 마리아성당이 합병한 공동체입니다.
- 주임신부: 한상만 토마스
- 문의: 사목회장 이항 요셉 ☎(626)965-7553

◆ 신상옥 복음성가 가수 콘서트(작은예수회 설립 10주년기념)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8시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LA 버몬트+아담스)
- 감사미사 : 오후 6시30분, 박성구 신부 · 최대제 신부 집전
- 연락처: 작은예수회 LA장애인시설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ck Av. Lakewood, CA 90721)
- 내용 : 추억이 있는 본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과 행사부품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로 & 정병옥 올리아 ☎(310)780-9055

노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베태임 안나 961-0942 11/11(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1/5(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심재은 클레멘스 213-760-7766 11/12(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순자 안젤라 201-320-9930 11/10(목)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남구역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위너 스프링 온천 895-8624 11/19-20(토~일)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금자 테레사 539-9526 1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866-8778 11/1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문종 바오로 796-6763 11/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박진숙 엘리사벳 562-860-8499 11/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신부님영명축일축하식 낮미사 후 친교장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위령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

위령 성월은 기본 바탕은 하느님 백성간의 사랑과 유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랑의 유대는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으로 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비단 이웃사랑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죽은 이들과의 사랑의 유대로도 뻗어나간다. 그러므로 위령 성월의 근본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요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정신의 표현이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와 희생을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위령 성월을 맞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한다. 나 혼자만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백성의 구원, 즉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셨다. 또 이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고통마저 감수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랑의 사도이어야 한다. <가톨릭 인터넷 자료실>

연옥 교리에 대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과는 달리 연옥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은 1336년 교황 베네딕도 12세에 의해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다. 교리 결정에 따르면 성인들은 죽은 후에 즉시 천당에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데 비

비해, 아직 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화된 뒤에 비로소 천당에서의 지복을 누리게 된다. 트렌트 공의회 역시 1547년에 반포된 "의화교령"에서 현세 이후에 연옥이 있으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 연옥이란 말은 성서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암시적인 구절들이 있을 뿐이다. 그중 1고린 3,12-15에는 살아있을 때에 과오를 범한 사람은 사후에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즉 노고와 곤경을 겪으면서 비로소 구원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연옥교리는 이미 교부시대에 이르러 분명하게 정착되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성인들의 통공 교리에 수용되었다.

우리는 흔히 연옥이라고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무서운 형벌을 받는 어떤 장소, 반지옥과도 같은 장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보다는 연옥을 하느님과의 만남의 과정과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무한하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그러한 인간이 죽어서 하느님을 뵈는 것은 그 자체로 정화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한없이 송구스럽고 또 한편 고통스럽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 자신, 하느님과의 만남이 바로 연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연옥은 완성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 무한히 거룩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의 한 순간이다.

죽음의 올바른 이해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대구에 있는 가톨릭 교회 묘지 입구에 다음과 같은 라틴어 격언이 자그마한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Hodie mihi, cras tibi'(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는 죽은 이들이 살아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격언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으나, 이곳은 내일 살아 있는 당신이 있을 곳이기때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여러 번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한 번뿐이고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뿐입니다.

죽음은 당사자가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이지만 다른 누가 대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히브 9,28)입니다. 교회는 죽음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하느님을 거스른 원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했으며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이와같은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정면으로 대적한 그리스도는 죽음이 자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을 넘어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